

조형적 사고체계에 의한 실내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ior Space Constitution From The Plastic Thinking

이선민* / Lee, Seon-Min

김혜자**/ Kim, Hea-Ja

Abstract

It was investigated on the logical inter-relationship with plastic thinking systems in interior space constitution. Followings were produced the conclusion of study from the plastic thinking. First of all plastic thinking could be interpreted as the stage-oriented process from various approaching by intuitional, experimental techniques through the expansion of thinking capability with linguistic activities. And also interior space constitution could be extracted from the plastic language relating with design concept, could be extracted the design element by processing on the formation process based on material's physical properties. Next, space perception and constitution should be followed the massive perception between empty and full space based on the interrelationship. Additionally the constitution of interior space could be established through axis, integrated with detail functions. Interior space constitution could be accomplished on the study of material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 planned to coincide with the space's characteristics in selection for texture.

키워드 : 조형, 실내공간구성, 디자인 사고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실내 디자인 과정의 초기 형태는 2차원적 형상이 위주가 되며 형태의 생성은 드로잉과 같은 미디어를 이용하여 점, 선, 면의 기본 도형을 기반으로 구나 다면체 등의 구체적인 입체를 설정해 가면서 진행된다. 이는 하나의 조형적 사고에 의한 것으로 그 결과를 얻기 전에 수많은 사고 매개를 통하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실내 공간을 하나의 입방체로서 그 안에 배열되고 놓여지는 것들에 대하여 어떤 접근 방법으로 주어진 공간과의 관련성을 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형성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내부공간구성에 작용하는 조형적 사고의 논리적 과정을 체계화하여 실내디자인의 접근방법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내공간구성을 하나의 조형활동으로 간주하여 조형적 사고방법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는가를 연구하여, 암묵적인 조형사고체계를 실내디자인과 결부시켜 보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체계로 발전시키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문헌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조형의 개념이 갖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본다. 또한 조형의 원리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실내디자인 사례들을 대상으로 조형적 관점에서 표현형태를 분석하여 이와 같은 원리들이 어떻게 추출되고 반영되어 있는가를 분석한다.

따라서 조형적 접근방법으로서 실내디자인상에서 디자인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분석하고 접근하여야 하는가를 언급하여 실내디자인 과정을 논리적인 사고 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2. 조형의 의미와 디자인 사례를 통한 분석

2.1. 조형의 개념

조형의 의미가 담긴 용어로는 독일어의 묘사하다(abbilden), 비슷한 상을 만들다(ein Bild machen)와 영어의 모델링

* 정회원, 신홍대학 실내디자인과 조교수

** 정회원, 안산공과대학 인테리어디자인과 전임강사

(modeling), 형태부여(form giving), 조화적 배치, 구조, 현상(conformation), 형식화 작업(form giving), 조화적 배치, 조각하기(carving or handisculpture) 등이 있다.¹⁾

조형의 어원은 희랍어의 '플라스티케' 또는 '플라스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플라스티케란 말은 그 후 플라스티카(plastica)라는 라틴어로 쓰였는데 그 의미는 조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리를 뜻하는 것이었다. 18세기에 이르러 조형의 뜻은 '자연대상의 모방'이라는 의미로 변질되었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자연형상의 모방행위가 거부됨으로서 조형에 있어서 독자성이 추구되었다. 그 후 조형활동의 양상이 변모, 확대되어감에 따라 조형의 의미를 자연의 예속이 아닌 독자성, 자율성, 순수성에서 찾게된다.²⁾

따라서 조형이란 어느 관념에서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하며 어떤 물질을 빌려 이것에 필요한 형태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재료의 설정과 기법 개발을 통한 창조적 활동으로 하나의 기능 아래 통일된 표현시도의 종합적 추구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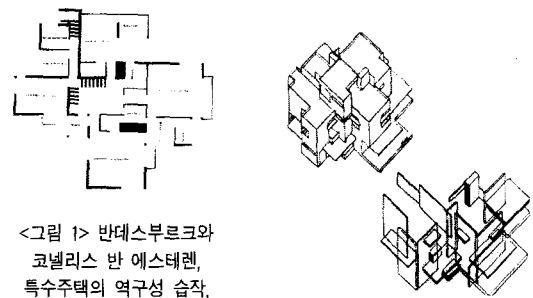
2.2. 신 조형주의적 관점의 해석과 사례분석

(1) 신 조형주의적 관점의 해석

19세기 이후 주체와 대상세계를 연결하는 시각적 대상에 관한 연구는 망막이미지와 빛에 의존하는 순수 시지각 원리에 대한 과학적 탐구로 발전했다. 특히 예술적 형태의 인식에서 상상과 상징이 제거된 시각적 투상의 직접적인 관계, 즉 순수 시각의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된 것은 19세기 말 미셔와 페들러, 그리고 힐데브란트에 의해서이다. 이들은 주로 회화와 조각 등 오브제적 형태의 시지각적 과정을 안구의 구조와 운동으로부터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힐데브란트의 형태인식은 대상에 대한 회화적 이미지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2차원의 평면 이미지를 매개로 한 3차원의 형태인식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여기에 대해 슈마츠는 주체의 움직임에 따르는 동적 시각(kinesthetic vision) 이론을 공간의 인식에 적용하면서 처음으로 근대적 의미로서 건축공간의 지각적 인식을 발전시켰다.³⁾

이와 같이 형식주의적-심미적 패러다임을 중시하는 형식의 개념은 고전주의의 공인된 모델로 언급되는 규범적 형식이 아니라 오브제(object)로서의 형식 그 자체를 의미한다. 예술과 건축 연구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태도는 20세기초의 입체파(cubism), 신 조형주의(Neo-Plasticism), 러시아 구성주의(Constructivism), 데 스틸(De Stijl)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건축운동과 이론은 내용보다는 형식적 구성과 수법에 치중하여 형식 자체의 자율적 구성원리를 추구한 근대 건축의 미학적 사상과 이론의 기반이 되어왔다.⁴⁾

이런 단순 형태로의 추상화는 보편성과 무한성을 추구하고 기본적으로 2차원과 3차원의 간격을 없애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특히 데 스틸을 주도했던 반 데스부르크는 선, 면, 색의 순수 조형요소가 건축의 기본 요소로서 3차원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3차원의 확장을 시공간의 개념을 빌어서 "신건축은 전후, 좌우, 상하의 모든 면을 동등하게 가치 있는 요소로 간주한다. 주택은 3차원의 조형요소로 분해해체되었다. 이 주택은 모든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다음의 코넬리스 반 에스테렌과의 습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림 1>에서 보면 입체적인 형태의 특징이 평면구성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평면은 단순한 2차원적 특징을 넘어서서 3차원적인 형태를 그대로 암시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신조형주의가 추구한 주택의 양식은 구성요소가 환원적이고 경제적이며 기능적인 그리고 비 기념적이고 역동적 규칙을 성취하게 되는데 이는 형태에 있어서 반 입체적이며 반 장식적이고 개방된 가변형의 평면구조를 나타내주고 있다.⁵⁾



<그림 1> 반데스부르크와 코넬리스 반 에스테렌, 특수주택의 역구성 습작.

또한, 시안(Chan, 1992)은 라이트(F. L. Write)의 주택에서 세 가지 디자인 원리로서 단순성(simplicity), 조형성(plasticity), 그리고 재료의 본질(the nature of material)을 들고 있는데, 겉으로는 단순한 형태의 조합으로 생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축가의 디자인 과정 중에 나타난 다양한 개념적 표출에 의한 결과물인 것이다. 이는 단지 형태의 조합이나 규칙의 적용만은 아니며 오히려 형태의 조합처럼 보이는 현상으로 그의 계획이 일정한 개념적 범주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의 부산물인 것이다.⁶⁾

이외에도 그 꼬르뷔제(Le Corbusier)는 입방체의 기본적인 요소의 조합으로 다양한 건축물을 만들고 본질적으로 훌륭한 건축형태도 간단한 입방체의 조합을 통해 형성된다고 했다. 순수 입방체인 초기 주택작품에서 규준선은 입면을 분절하여 질서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법이였다. 이 경우 질서란 동일계통에 속하는 요소 사이의 관계를 수립한 것으로, 자율적인 형태원리를 부여함으로써 조형물의 형태구성 원리를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1)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1,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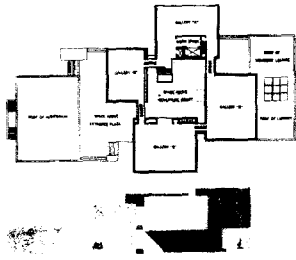
2)오근재, 입체조형과 새로운 공간, 미진사, 1991, p.11

3)이상헌, 시각의 감옥: 3차원 공간의 2차원 재현으로부터 2차원 평면의 3차원적 투사로, 한국 역사학회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2000, 6, p.77

4)길성호, 현대건축 사고론, 도서출판 미진사, 1997, p.49

5)Frampton, k., Modern Architecture-a critical history, 정영길·윤재희 역, 도서출판 세진사, 1987, p.255

6)오신욱·조용수, 조형개념 형성을 위한 건축 디자인 사고체계 관련 연구, 대한 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 18권, 제 2호, 1998, 10, p.458



<그림 2> I. M. Pei의 에머슨 박물관의 평면과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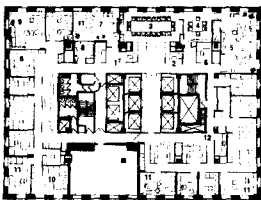
아이엠 페이(I.M. Pei)의 에머슨 박물관은 면의 조합에 의한 조형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서 평면과 입면이 모두 면의 조합이라는 주제에 의하여 설계되었다.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통하여 조형적인 사고에서 추출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덩어리를 형성하는 형태구성 원리만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 범주에 의한 형성과 조합의 원리로서, 또는 평면과 입면 즉, 2차원과 관계된 3차원을 형성하는 구성원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조형적 사고체계에 의한 실내공간구성 사례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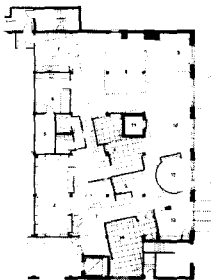
조형적 관점에서 건축 내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그 구성방법의 기초를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부 공간의 평면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의 기준은 각 대상이 조형적 관점에서 규범적 질서체계, 질서체계의 왜곡과 변형, 그리고 대조라는 조형언어를 유추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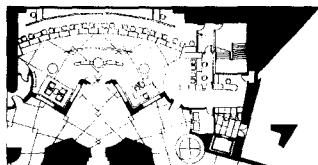


<그림 3> Edie Lee Cohen이 디자인한 사무실

<그림 3>은 전형적인 사무실로서 조형의 원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해당되는 규범적인 질서체계에 의한 공간 구성으로 이다. 모든 세부 공간 구성과 배치가 인간공학적인 스케일에 근거하며 명확성과 절제성, 단순성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4>는 규범을 벗어나 복잡성을 추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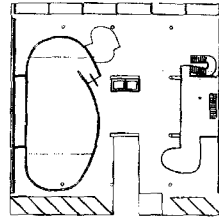


<그림 4> 칸막이에 의하여 공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계획된 디자인 사무실



<그림 5> First interstate Bank

형태로서 대칭성으로부터 이탈하고 규칙적 조직에 이질적인 것을 집어넣으면서 친숙한 형태를 왜곡시켜 새로운 복잡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비틀림 속에서 새로운 질서체계를 부여하고 있다. <그림 5>의 First interstate Bank는 하나의 동심원을 구도체계로 하여 기하학적 질서를 갖고 있으며 이미 확립된 질서가 되는 기준선을 준수하면서 심진적으로 확장되는 구도로 평면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위계 구도 속에서 즐거움과 방향감을 주며 중심 축에 의하여 확장되는 질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6> 곡선과 직각의 형태로 르코르뷔제의 아메다바드의 밀오네즈 빌딩 4층평면

<그림 6>은 외부 형태와 내부 벽의 구성방식이 대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두 가지 형태가 분명하고 즉각적인 정체성을 부여한다. 대조적 요소들의 상호 의존성은 대립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긴장에 의해 이루어져 있으며 차별적이고 상반적인 특징이 충분히 표현 되어있다.

지금까지 내부공간구성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분석해 본 결과 공간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기에 앞서 디자이너의 강한 조형적 개념에 의하여 평면구성방식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공간조형의 단계와 양면적 특징의 이해

3.1. 조형적 사고에 의한 공간조형화 단계

조형창조물은 만드는데는 형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형은 수많은 의미와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조형작품의 이미지와 대상에 의하여 조형활동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며 그 결과로 대상과 정신의 결합체가 탄생된다. 논리적 분석적 프로세스를 통하여 그것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의 표는 조형적 사고를 기반으로 형태화되는 단계를 나타낸 것으로서, 구상적 단계→기술적 단계→형태적 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조형물이 형성되며 각 단계에 있는 세부적 과정으로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

과정을 통하여 조형물이 형성되며 각 단계에 있는 세부적 과정으로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

<표 1> 조형화단계⁷⁾

구분	세부단계	의미 및 방법
구상적 단계 (Imaginative Approach)	이미지로써 형식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상상적 상을 근거로 하거나 어떤 대상의 인식을 통하여 이루어짐
	질서의 부여	아이디어는 시각적 상상에 의하여 사물의 이미지를 작가의 표현을 통해 재구성한 하나의 질서
	보편적인 기능의 발견	기초적으로 형성하게 되는 기능의 일반성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기본적인 원리의 추구
기술적 단계 (Technological Approach)	실체적 구조의 탐구	대상자체의 구조적인 원리의 탐색을 통하여 이를 체계화시키는 방법으로 조형적 대상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체계화시키는 방법
	전형(type)과 체계의 수립	기술적 단계의 구조적 원리들을 추출하여 하나의 원리로 형성하여 디자인의 원형으로서 구축시키는 방법
형태적 단계 (Functional Approach)	물질적인 환경문제의 인식	조형적 대상을 담고있는 환경과의 관련성을 탐구하여 관계성의 관점에서 추구하는 것으로 공간의 구성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짐
	인간과의 관계속에서 파악	형체화되는 것에 의하여 인간은 살아가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으며 디자인 이론은 이러한 형의 형성에 즈음하여 창조적으로 살아있는 조직으로 생각해야한다.

3.2. 실내 디자인의 양면적 특성의 이해

실내 디자인을 포함하는 건축공간예술은 물질을 매개로 하는 응용, 목적예술로서 그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을 추상적 형식으로 표출하는 조형예술, 특히 공간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⁸⁾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는 그 사람의 성향과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간주한다면 이 법칙은 디자인이나 형태부여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양면성은 중국철학에서 정반대이나 서로 보완적인 힘, 음과 양 가운데에서 그 표현을 찾을 수 있다. 이 표현은 두 개의 다른 힘의 대립과 상호 작용에 의하여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으로 서양철학에서 이 관계를 '정반대의 동시 발생'으로 표현한 것은 니콜라스 크사누스였다.⁹⁾

설계의 과정에도 이와 같은 양면성이 작용되는데 기능의 충족을 개념적으로 사고하는 프로세스와 이미지가 감각적으로 누적되는 창작 프로세스로서, 전자는 지적 프로세스이고 후자는 감성적 프로세스이다. 이는 개념적 사고의 프로세스를 한 후 감각적인 프로세스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양자가 동시에 종합되는 것이며 이렇게 합치될 때 창조의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이다.¹⁰⁾

이와 같이 내부 공간설계에 있어서 조형적 사고는 많은 종류의 정보를 조직화하고 그들 모두를 종합해서 하나의 일관된 생각으로 만들어 그것을 실현시켜야하는 고도로 조직화된 정신적 프로세스이다. 내부 공간 설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디자인이 기술적으로 합당해야하고 조형적이고 심미적인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조형적 원리를 기초로 하여 이에 근거한 논리적 사고와 창조적 사고의 두 가지를 함께 묶어 냄으로서 가능하게 된다.

7) 辻弘, 彩山明博, 조형형태론, 김인권 역, 미진사, 1986, p.26

8) 실내디자인의 기법해석에 관한 연구 - 건축 및 조형예술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8권 9호, 통권 47호 1992, 9, p.14

9) Jurgen Joedicke, 건축의 공간과 형태, 진경돈 역, Spacetime, 1999, p.59

10) 김효일 편저, 건축의장르, 경남대 출판부, 1997, p.33

4. 조형적 사고에 의한 실내 공간구성¹¹⁾

조형적 사고의 방법은 랭거(S. Ranger)의 '예술기호론'에서 언어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형적 사고는 일정한 약속의 규칙에 의하여 창작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일정 단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언어로서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잡아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공간의 구성은 작가가 조형의지를 표현하려는 대상의 조형방향을 결정하는 시발점이 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에 조형구성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에 서술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공간의 구성원리가 행해져야 한다.

- 형태의 본질을 분명히 파악해야한다.
 - 구성 방법의 기초적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한다.
 - 공간의 구성방법을 체득하여야 한다.
 - 공간구성 요소가 공간의 연출에 어떻게 작용되는 지를 알아야 한다.
 - 물리적 환경의 문제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취급해야한다.
- 따라서 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실내공간구성에 있어서 논리적 체계형성을 위한 명확한 접근방법으로서 정립하여 보고자 한다.

4.1. 조형언어의 추출

조형언어의 추출은 디자인의 전반적 개념에 작용하는 중요한 원리로서 디자인과정과 결과물에 적극적으로 적용되며 평가의 기준이 된다.

다음의 조형언어들은 언어의 상대적 개념을 근거로 하여 실내 공간의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로 하는 언어들에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지각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는 조형언어의 추출은 형태의 추출을 위한 원리로 작용하며 3차원적인 형태구성, 2차원적인 평면구성, 또는 통합적이거나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¹²⁾

균형/ 불안정성(Balance/ Instability), 대칭/ 비대칭(Symmetry/ Asymmetry), 규칙/불규칙(Regularity/ Irregularity), 단순/ 복잡(Simplicity/ Complexity), 통일/ 분열(Unity/ Fragmentation), 절제있는/ 워려있는(Economy/ Intricacy), 억제된/ 과장된(Understatement/ Exaggeration), 예측할 수 있는/ 자발발생적인(Predictability/ Spontaneity), 활동적인/ 정지해있는(Activeness/ Stasis), 교묘한/ 대담한(Subtlety/ Boldness), 투명한/ 불투명한(Transparency/ Opacity), 일관성 있는/ 변화 있는(Consistency/ Variation), 정확함/ 일그러진(Accuracy/ Distortion), 평면적인/ 깊이 있는(Flatness/ Depth), 단일함/ 병치되어있는(Singularity/ Juxtaposition), 연속적인/ 무작위(Sequentiality/ Randomness), 선명함/ 확산적인(Sharpness/ Diffusion), 반복적인/ 삽화적인(Repetition/ Episodicity)

11) 구성이란 대상의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사이에 질서있는 관계를 부여하는 것인데, 그 구성방식은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성을 갖게하는 것이다.(출처 : 고성룡 편역, 건축조형원습, 대우출판사, 1989, p.72)

12) Dondis, Donis A, A Primer of Visual Literacy, MIT Press, p.111

<표 2>는 여러 조형언어를 하나의 'style'로 범주화하여 각 작에 적합한 조형언어들을 분류한 것으로 디자인 요소, 테크닉, 구문론, 영감, 그리고 기본적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개념으로 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하며 구성방법의 기초 원리로서 작용하게 된다.¹³⁾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디자이너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지만 조형언어에 의한 객관적 기준은 디자인 전반에 걸친 하나의 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2> 각양식에 의한 조형언어의 추출

구분	조형 언어
Primitive Techniques 원초주의적인	Exaggeration 과장/ Spontaneity 자발성/ Activeness 활동적인/ Simplicity 단순성/ Distortion 왜곡/ Flatness 평면성/ Irregularity 불규칙성/ Roundness 원만함/ Colorfulness 색채가 풍부한
Expressionistic Techniques 표현주의적인	Exaggeration 과장/ Spontaneity 자연발생적인/ Activeness 활동성/ Complexity 복잡함/ Roundness 원만함/ Variation 변화/ Distortion 왜곡/ Irregularity 불규칙성/ Juxtaposition 병렬, 병치/ Verticality 수직성
Classical Techniques 고전주의적인	Harmony 조화/ Simplicity 단순성/ Accuracy 정확성/ Symmetry 대칭성/ Sharpness 날카로움/ Monochromaticity 단색성/ Depth 깊이/ Consistency 일관성/ Stasis 균형/ Unity 통일
Embellished Techniques 장식적인	Complexity 복잡성/ Intricacy 복잡/ Exaggeration 과장/ Roundness 둥근/ Boldness 대담함/ Fragmentation 분열/ Variation 변화/ Colorfulness 다채로움/ Activeness 활동적인/ Brightness 밝음
Functional Techniques 기능주의적인	Simplicity 단순성/ Symmetry 대칭성/ Angularity 모님/ Predictability 예측가능성/ Consistency 일관성 있는/ Sequentiality 연속적인/ Unity 통일/ Repetition 반복/ Economy경제성/ Subtly에민함/ Flatness평범함, 무미함/ Regularity 규칙성/ Sharpness 날카로움/ Monochromaticity 단색의/ Mechanicalness 기계적인

따라서 실내공간구성에 있어서는 언어는 사고를 정립시킬 수 있는 틀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절제와 변용의 원칙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형 언어의 추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미징적인 특성에 의한 미적 구성 요소의 원리가 함께 도출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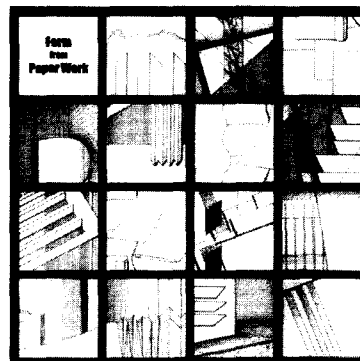
4.2. 디자인 주제와의 관계성에 대한 분석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개념의 중요성은 전 디자인 과정의 핵심적 문제로서 가장 우위에 자리한다. 로슨(Lawson 1994)과 마이오(Mayo 1994)의 디자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디자인 모티브'는 보통 디자인 원리, 혹은 디자인 개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의미한다. 그러나 '디자인 개념'은 일종의 디자인 지식으로 인지적 측면에서 설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반면에 '디자인 원리'는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성격을 갖는다.¹⁴⁾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주제는 언어적 사고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드로잉, 색, 재료, 질감, 형태의 경험, 미학을 바탕으로 한 3차원적 연구로 이어진다.¹⁵⁾ 이는 하나의 통찰로서 조형적 사고에 의하여 디자인 주제와의 관계성을 이끌어 낸다. 따라서

주어진 계획대상의 특성에 의한 계획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원론적인 의미를 연계시킬 수 있는 언어적 개념에 의한 체계의 형성을 의미한다. 또한 생각을 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조형의 질서원리들을 추출하여 이를 변용하거나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질서체계를 부여하며 이를 근거로 원리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실내디자인에서 주어지는 주제에 대한 하나의 구상적 단계로서 실천론적 구상(image)으로서 격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며 인식론적으로 질서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이미지로서 격식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는 심상적 상을 근거로 하거나 어떤 대상에 의한 인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심상¹⁶⁾과 표상¹⁷⁾으로 나뉘어진다.



<그림 7> 논자의 작업으로서 종이를 활용하여 Bending/ Breaking/Partial Representation/ Addition/Penetration/Alienation/ Perspective Representation에 의하여 디자인 요소들의 추출

위의 예제의 주제는 "평면으로부터의 입체화"라는 기초 조형의 개념을 가지고 면적 특성을 갖고 있는 종이를 활용한 것으로 조형적 사고방법 중 실험적 방법에 의한 실체화 과정이다. 여기에서 추출되어진 디자인 요소는 평면을 구성하는 원리에서부터 상세한 부분을 구성하는 디테일, 또는 장식문양에 이르기 까지 범용된다.

<그림 8> 에서 나타난 것은 실험적인 형태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디자인 요소가 벽면 전체를 구성하는 형태로 응용한 것으로 실험적 방법에 의한 구상에 해당한다.



<그림 8> Kenji Komoriya가 설계한 형태의 실험을 통하여 구성되어진 류류점



13)ibid., Dondis, Donis A, pp.136-144

14)이한석, 건축디자인 행위의 동기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3권 4호, 1997, 4, p.44

15)Thiel, Philip, Visual Awareness and Desig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7, p.5

16)심상 : 디자인영역에서는 이미지(mental image)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마음속의 그림'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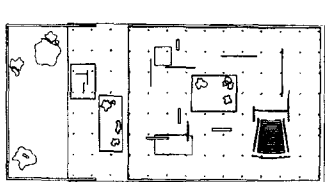
17)표상 : 심상에 대한 대상의식을 말한다. 이들은 하나의 그림으로, 또 하나는 그에 대한 대상의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속의 작용은 서로 다르다고 할 지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시각언어를 포함하여 언어적 형태를 띠게 된다.

4.3. 공간 형태의 분석

내부 공간은 건물의 구조시스템에 의해 모양이 만들어지고 다음으로는 벽과 천장 면이 결정되며 창이나 출입구에 의하여 다른 공간과 관계를 이루게된다. 그리고 각각의 형식은 자신이 갖는 기호와 모양으로 공간의 볼륨을 성형하고 조각하고자 하는 기하학적 형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간형태의 인식은 실제적인 구조의 탐구단계로서 대상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원리를 탐색하여 이것을 체계화시키는 방법으로 분석된다.

공간을 계획에 있어 첫 단계는 지배적인 형태 속성을 선택하는 일이다. 이 작업은 “건축적 형태의 성격에 대한 예비적인 고려”, “어떤 형태의 물리적인 강도(strength)와 같은 실용적인 것에 대한 예비적인 고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형태가 전달할 수 있는 표현적 메시지(expressive message)”에 대한 예비적인 고려까지를 포함한다.¹⁸⁾

따라서 디자이너는 공간의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와 그에 의하여 규정된 공간과의 사이를 그림과 바탕으로의 관계로 이해하고, 구조와 공간 중 하나가 이 관계를 지배하게되는데 어떤 것이 지배적이 되든 우리는 다른 쪽을 이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해야한다.¹⁹⁾ 또한 디자이너들은 공간에서 물체의 입체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형, 부피, 질량(mass)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넓은 의미에서 형태란 매체, 기술, 시각적 구조 원리와 관련된 용어들의 총합으로서 3차원의 관점에서 포맷(format)은 공간에 존재하는 면과 그 면들의 내부적 관계를 구성하는 구조를 여러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규격화해 본 개념으로 이해되어진다.²⁰⁾ 미스가 계획한 박물관의 평면을 보면 구조적인 기둥이 벽면에서 분리되어 공간 속에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기둥은 건물의 외피와 일체화되어 기둥의 단면이 건물의 전체공간에 극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전의 기둥은 공간의 수평적인 움직임을 거의 방해하지 않고 있으나 새로운 기둥은 실질적으로 멈추도록 하고 있다. 기둥은 자율적인 구조단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련의 기둥들은 이제 일종의 뼈대로만 된 칸막이 혹은 불연속적인 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9> Mies van der Rohe의 소도시 박물관 계획안, 1942

18) Ball, Victoria Kloss, 인테리어디자인이라는 예술, 김진표·정윤경 역, 집문사, 1992, p.77

19) Francis D.K. Ching, 일러스트에 의한 인테리어디자인, 신동훈·김충정 공역, 기문당, 1995, p.18

20) 찰스 왈쉬레거, 신디아 부식-스나이더, 디자인의 개념과 원리, 원유홍 역, 안그라픽스, 1998, p.140

이와 같이 실내 공간에 기둥이나 그 연장선상에 벽을 세우거나 가구를 배치하는 일은 공간에 부피와 질량을 주는 개념으로 인식해야 하며 비어진 공간은 또 하나의 투명한 질량을 가진 형태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내부 공간에서 주어지는 공간의 형태와 내부 구성요소들은 한꺼번에 감지하여 심상적 느낌을 포함한 형태로서의 인지되어야 한다.

4.4. 매스와 스케일-공간 크기, 넓이, 높이와 관련 크기

스케일은 특정한 측정단위와 관련이 있는 형태의 크기와 치수를 말한다. 스케일은 두 가지로 결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쓰이는 측정도구를 통하여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눈대중으로 비교해서 정하는 방법이 있다.²¹⁾ 조형적 사고에서 언급하는 스케일은 상대적 크기(relative scale)를 말하는 것으로 관계성에 의한 상호작용과 비교를 의미한다. 크기는 상대적인 용어로서 크기를 결정하려면 서로 비교되는 형태가 필요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스케일, 깊이, 거리를 결정하도록 도와주며 시각적 형태나 구성에 의미를 더해준다.

이와 같이 실내공간구성은 물리적 환경의 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취급되어야 하고 비워진 것과 채워진 것과의 관계는 그 대상을 담고 있는 비어진 환경과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관점으로서 다루어져야하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의 조형적 사고에 의한 작용이다. 이것은 공간을 통한 입체물의 관찰자적 관점에서의 통찰력과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요소와 크기에 해당하는 폭, 길이, 높이의 종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허부 자체, 인간이 살고 움직이는 에워싸인 공간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내디자인상에서의 스케일은 인체공학적인 적정치수를 바탕으로 기능적으로 이해되어지는 일차원적 개념을 벗어나 이차원 적인 크기로 인식하고 단혀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각현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4.5. 공간 중심의 설정

공간의 지각은 세 개의 공간축(spatial axis: 1차원, 2차원, 3차원)과 한 개의 시간축(temporal axis)으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 내부 공간구성에서 디자이너가 다루어야하는 것은 시각적 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간구성상의 축은 보이지 않는 형태와 공간의 구성수단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공간내의 두 점에 의해 형성되며, 형태나 공간의 주변에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정렬될 수 있고 비록 비가시적이지만 축은 매우 강렬하고 우세하며 규정적인 도구이다. 하나의 축은 근본적으로 선형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길이와 방향의 특질은 가지고 있으며 그것의 통로를 따라서 운동과 시계가 유도되고 형태와 공간의 대칭적 배

21) ibid., 찰스 왈쉬레거, 신디아 부식-스나이더, p.215

열로도 창출된다. 따라서 축은 형태와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통제력을 가지기도하며 단순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²²⁾

따라서 실내디자인에 있어서의 축의 설정을 조형적 사고를 위한 기본 구조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공간을 구성하는 절대적인 구성의 질서²³⁾를 부여하는 기준선이 되며, 시전의 이동 경로로서 방향제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모든 세부기능들을 통합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것은 공간을 형성하는 직접적인 형태형성도구로서 기능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공간을 형성하는 직접적인 표현형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림 10> 논자의 작품연구로서 사무공간의 축의 설정과 그에 의거한 평면

<그림 10>은 논자가 앞서 언급하였던 “평면으로서의 입체화”라는 주제를 진행시킨 것으로 S자형 축을 기본으로 하여 종이의 겹쳐짐과 부분적 재현(Partial Representation), 그리고 구부러짐(Bending)등을 활용하여 공간의 축을 설정한 것으로 벽의 구성과 집기의 배열, 그리고 바닥패턴을 계획한 것이다. 이는 추출한 조형원리가 축의 구성과 세부 공간의 배치에 있어서 적용되도록 한 것으로 직접적인 표현의 원리로 사용되도록 한 것이다.

4.6. 소재의 질감에 대한 탐구

조형이란 형을 만드는 행위이므로 직접 재료와 부딪쳐 체험하는 가운데 그 재료가 지니고 있는 성질과 그 표현 가능성을 체득함으로써 창조 능력이 배양된다. 창조의 전제는 고정된 개념이나 선입 관념 또는 틀에 박힌 기법이나 모양을 탈피하는데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개개인의 미의식 표현도 구체적인 재료에 의한 유기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며 조형은 물질에 의한 표현 세계이므로 이 물질자체가 갖는 재질의 기능이나 본질은 형태의 성격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재료 속에 잠재된 미를 발굴하는 기술적인 힘도 바로 창조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²⁴⁾

22)ibid., 김효일 편저, p.144

23)질서의 부여 : 아이디어란 시각적 상상에 의하여 사물의 이미지를 작가의 표현을 통해 재구성한 하나의 질서이다. 그것은 형식에 대한 가능성의 탐구이며 모험이며 실험인 것이다. 따라서 조형적 사고체계의 과정을 통하여 원리성을 근거로 하여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24)ibid., 커트 헵크스, 래리 벨리스톤, p.123

3차원의 공간구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점, 선, 면, 입체와 같은 차원으로 분류한 “모양의 요소”로서 구성을 생각하는 것이 있으며, 또 하나는 “소재”에 주목해서 어떤 소재가 어떠한 특질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활용하면 “어떠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소재에 의한 형태창조의 탐구의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의 명확한 소재기준²⁵⁾에 의한 소재 선택은 사전 기술적, 구조적인 필요에 의해 선정되어야 하며 잘 선택된 소재의 가치는 전체적인 대상의 가치에 상응하는 것이다.²⁶⁾

또한 촉각적 질감과 시각적 질감²⁷⁾(tactile texture and visual texture), 장식적 질감(decorative texture)²⁸⁾을 일컫는 것으로서 질감은 공간구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림 11> 장식적 질감의 사용 예로서 Kenji Komoriya가 설계한 카페테리아

따라서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질감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우리의 감각적 차원의 질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형태를 보완하고 재료의 종류와 색 이상의 차원을 다루면서 공간의 성격과 디자인의 질적 차원에서 영향력을 갖게한다.

5. 결론

조형적 사고체계와 그 대상물에 대한 디자이너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무한히 전개해 갈 수 있는 원리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건축 내부공간 구성에 있어서 작가의 심상적 과정으로 판단되는 기초 조형의 원리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해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적용되어 질 때 보다 명백한 사고에 의한 접근방법으로 실내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상관성을 연구하여 보았다.

25)전체적인 개념 또는 대상에 대한 선택적 소재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물적-질적 수준에 상응한다.(Karl. Chr. Hauser, Innenarchitektur und Raumgestaltung, 실내건축공간계획, 이상권 역, 문운당, 1992, p.20)

26)Karl Chr. Hauser, Innenarchitektur und Raumgestaltung 실내건축공간계획, 이상권 역, 문운당, 1992, p.20

27)장식적 질감은 사물의 표면을 실제와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의 표면이나 화면에 문지르거나 튀어나오게 하거나 기하학적 패턴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질감은 시각 또는 촉각적 장식적으로 사용된다.

28)촉각적 질감은 겹치는 기법이나 풀라주 기법, 불룩 튀어나오거나 오목 들어가게 하는 기법, 일련의 작은 구멍이나 윗기를 종이 표면에 만드는 기법 등으로 생성할 수 있다. 질감으로 둘러싸인 형태를 사용해서 매우 큰 구성적인 형이나 형태를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연구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첫째, 조형적 사고는 언어적 활동을 통한 사고 능력의 확대로서 이를 바탕으로 실험적 기법에 의하여 다양하게 접근된다. 이것은 결과물 지향 중심이 아니라 추후 디자인에 적용될 여러 형태의 접근방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과정에 의하여 형성된다.

둘째, 디자인 주제와 관련 있는 조형언어의 추출과 재료의 물적 특성을 바탕으로 형태화의 과정의 원리로 작용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추출한다.

셋째, 상호 관련성에 의한 공간 형태의 분석으로서, 시각현상을 바탕으로 하여 상대적 공간 크기에 대하여 비어진 공간과 채워진 공간 모두를 질량적으로 인식하고 조형적 대상을 담고 있는 환경과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관점이 내부공간구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넷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축은 보여지지 않은 형태와 공간의 구성수단으로서 작용하며 내부 공간의 방향을 설정하고 질서를 부여하며 세부 기능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재료의 성질을 바탕으로 소재의 탐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질감의 방향설정은 공간의 성격과 추출된 조형언어와 일치될 수 있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조형적 감각의 힘은 극히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단순한 감각만으로 표현한다면 개인적 만족에 그치게 되고 객관성을 잃게되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조형적 사고의 여러 가능성 속에서 가장 우수한 해답을 선택하여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감각과 논리성을 모두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김효일 편저, 건축의장론, 경남대 출판부, 1997
2. 로즈메리 킬머 W. 오티 킬머, 인테리어디자인 : 기초이론, 김혜원 외 2인 역, 교문사, 1999
3. 함정도·박경애 공저, 조형공간 구성 연습, 서울 산업대학교 출판부, 1998
4. 찰스 왈쉬레저, 신디아 부식-스나이다, 디자인의 개념과 원리, 원유홍 역, 안그래픽스, 1998,
5. 커트 헵스, 래리 벨리스톤, 발상과 표현기법, 박영순 역, 도서출판 디자인 하우스, 1987
6. Dondis, Donis A, A Primer of Visual Literacy, MIT Press
7. Cynthia Maris Dantzie, Design Dimension, 오근재·박경인 역, 미진사, 2002
8. Francis D.K. Ching, 일러스트에 의한 인테리어디자인, 신동훈·김충정 공역, 기문당, 1995
9. Jurgen Joedicke, 건축의 공간과 형태, 진경돈 역, Spacetime, 1999
10. Karl. Chr. Hauser, Innenarchitektur und Raumgestaltung, 실내건축 공간계획, 이상권 역, 문운당, 1992
11. Pierre von Meiss, 형태로부터 장소로·정인하, 여동진 공역, spacetime, 1993
12. Thiel, Philip, Visual Awareness and Desig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7
13. 함정도·이광노, 실내디자인의 기법해석에 관한 연구 -건축 및 조형예술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8권 9호, 통권 47호 1992, 9

14. 박경애, 건축 디자인의 기초 조형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논문 계획계, 15권 8호(통권 130호), 1999, 8
15. 오신욱·조용수, 조형개념 형성을 위한 건축 디자인 사고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 18권, 제 2호, 1998, 10
16. 윤천근·김득선·김명희·강철구, 건축입면표현을 위한 시각감응언어의 특성 고찰,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12권, 10호, 통권 96호, 1996, 10
17. 이상현, 시각의 감옥 : 3차원 공간의 2차원 재현으로부터 2차원 평면의 3차원적 투사로, 한국 역사학회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2000, 6

<접수 : 2002. 8. 31>